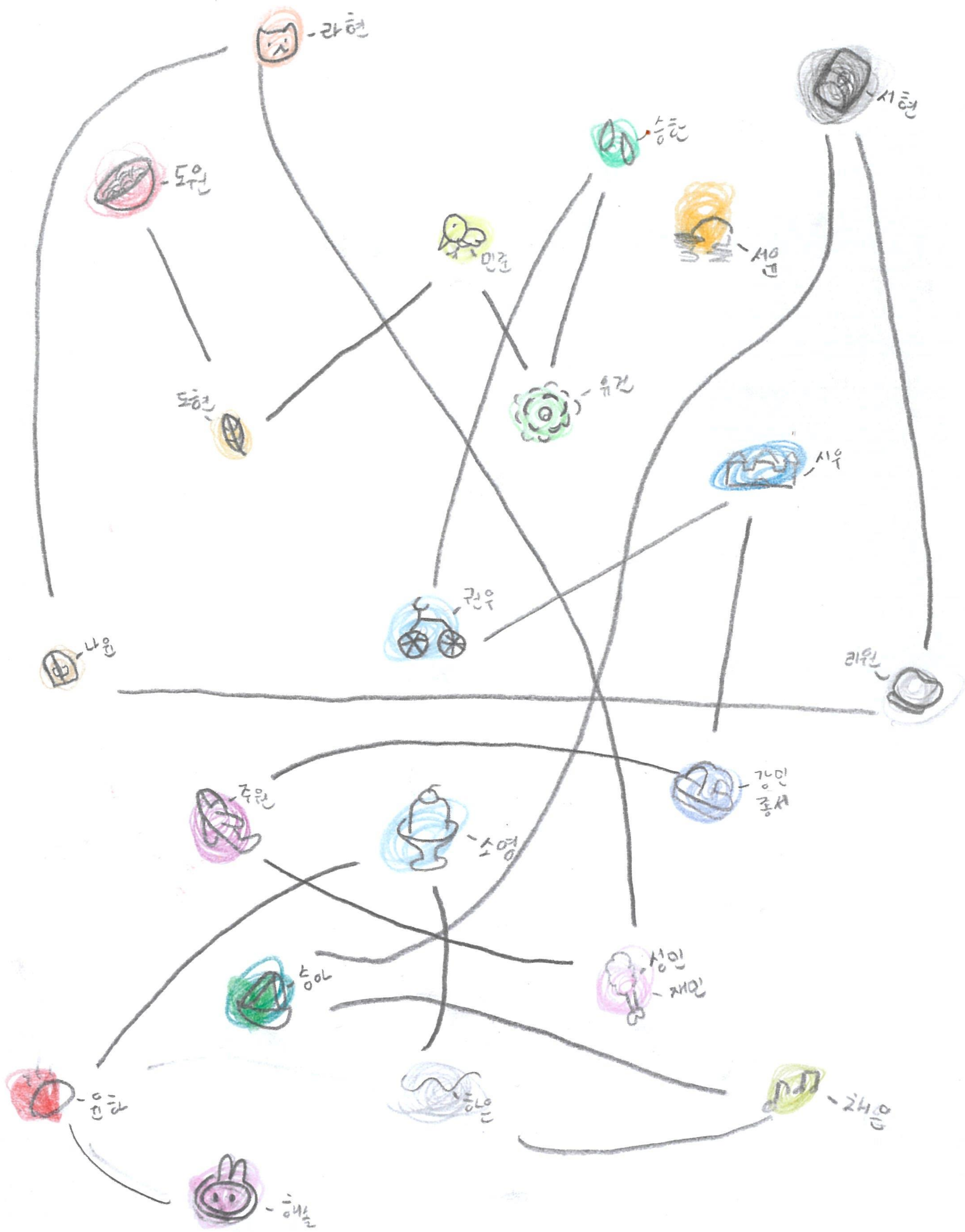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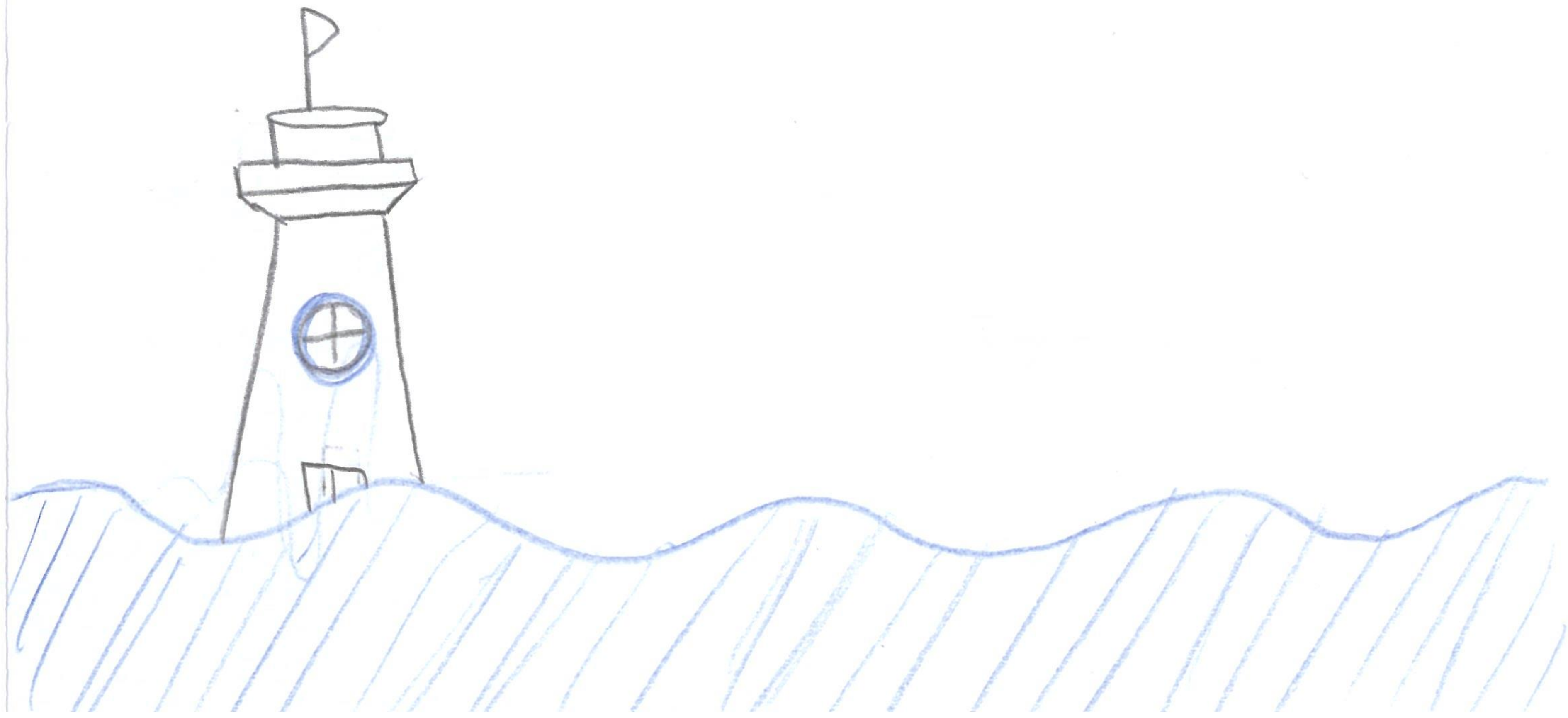


특별한 우리들의 평범한 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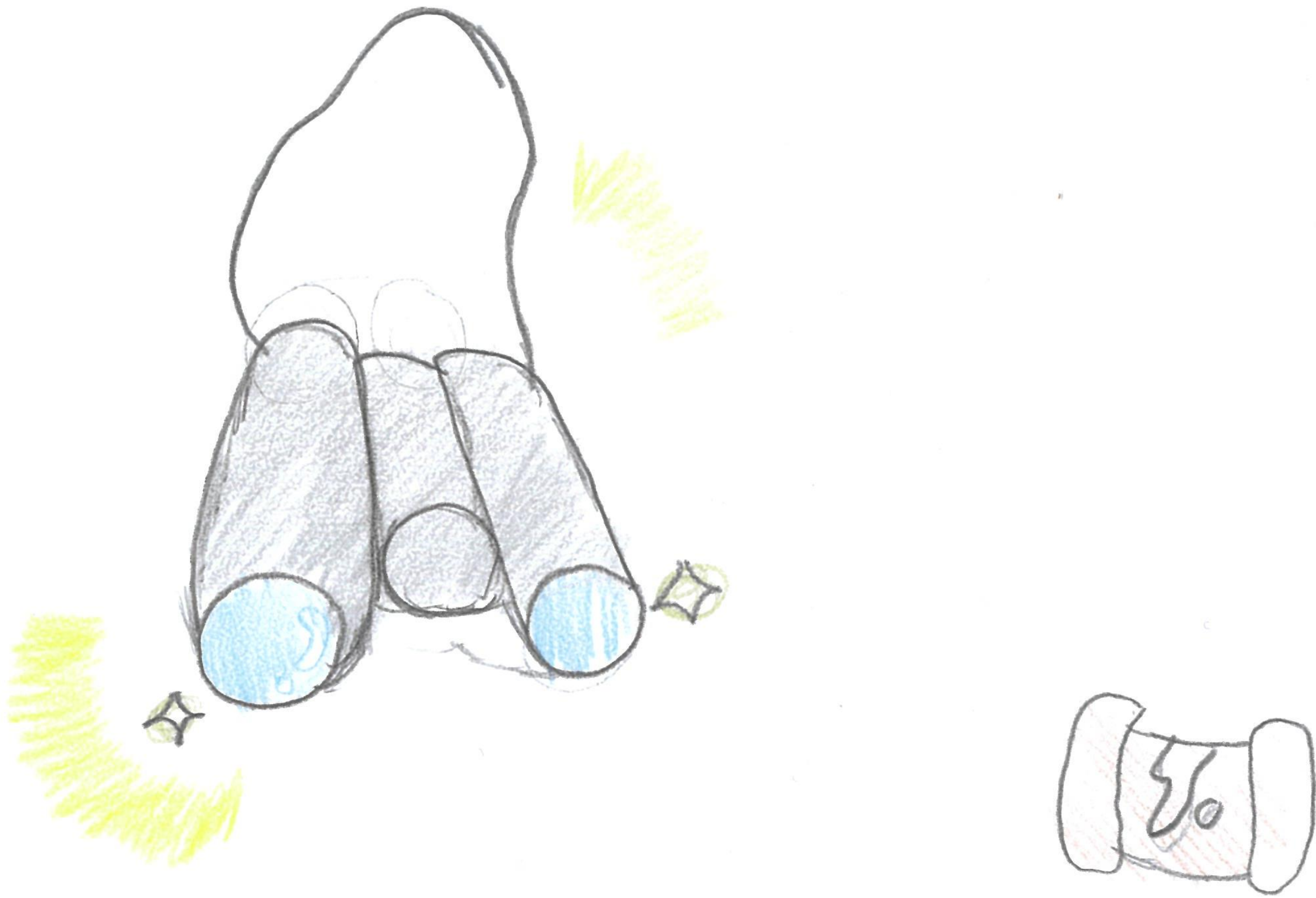
슬기로운

이웃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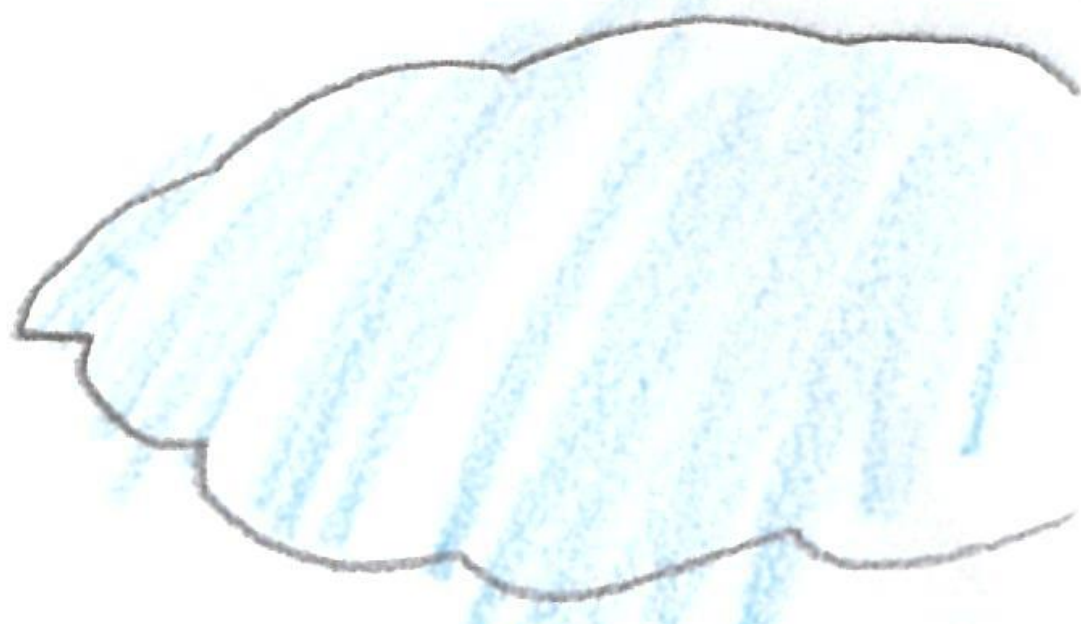
중요하♡



두근두근, 나의 첫 한국 여행!
편지만 주고받던 한국인 친구 꾸미가
나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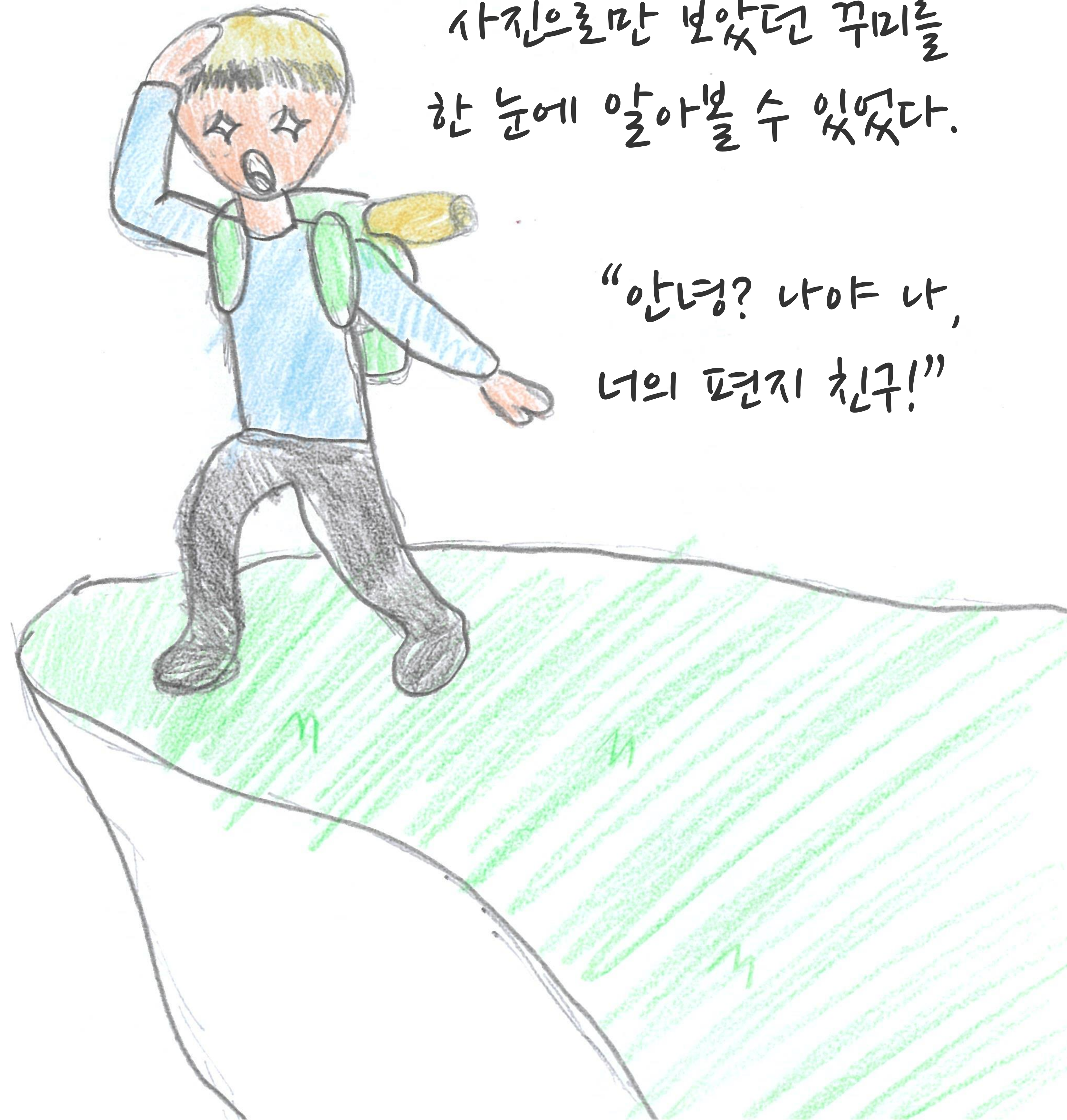


꾸미는 인천에 산다. 꾸미가 인천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소개해주기로 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꾸미를 만나서 직접
인사도 나눌 생각에 무척 설렌다.
약속 장소는 꾸미네 학교인 인천초은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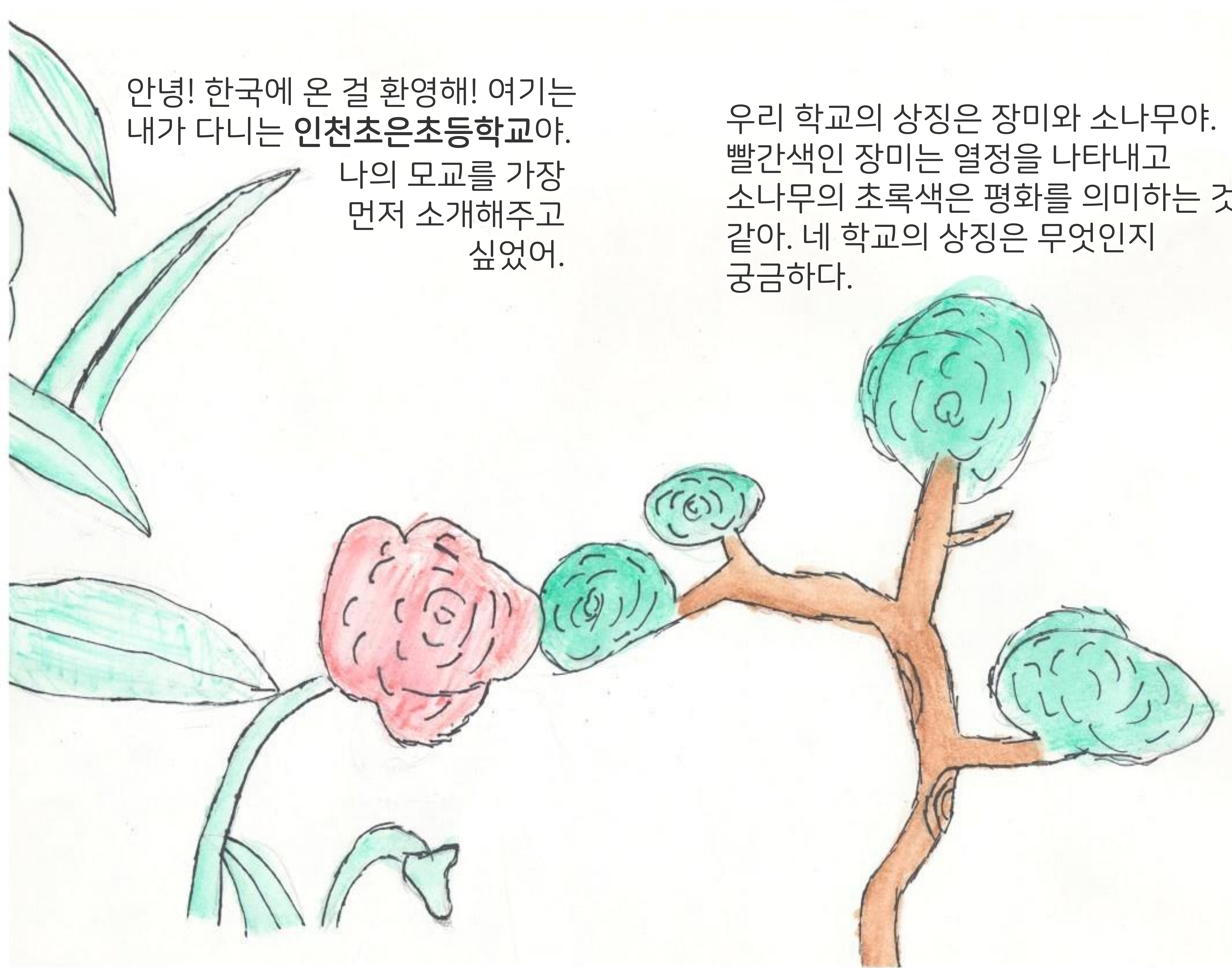
‘앗, 저기 꾸미가 보인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꾸미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안녕? 나야 나,
너의 편지 친구!”



안녕!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여기는
내가 다니는 인천초은초등학교야.
나의 모교를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어.

우리 학교의 상징은 장미와 소나무야.
빨간색인 장미는 열정을 나타내고
소나무의 초록색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 네 학교의 상징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교 바로 옆에는 심곡천이 흐르고 있어.
심곡이란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지.
공촌천, 시천천과 함께 서구 매립지를
통과하는 하천이야.

하천 하류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대.
또, 심곡천변은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야.



청라호수공원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다 갖춘 공원이야. 보트도
탈 수 있고,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어!
놀이터는 짚라인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
2026년 완공되는 청라시티타워도 있고,
팔각정 같은 건축물도 멋진 볼거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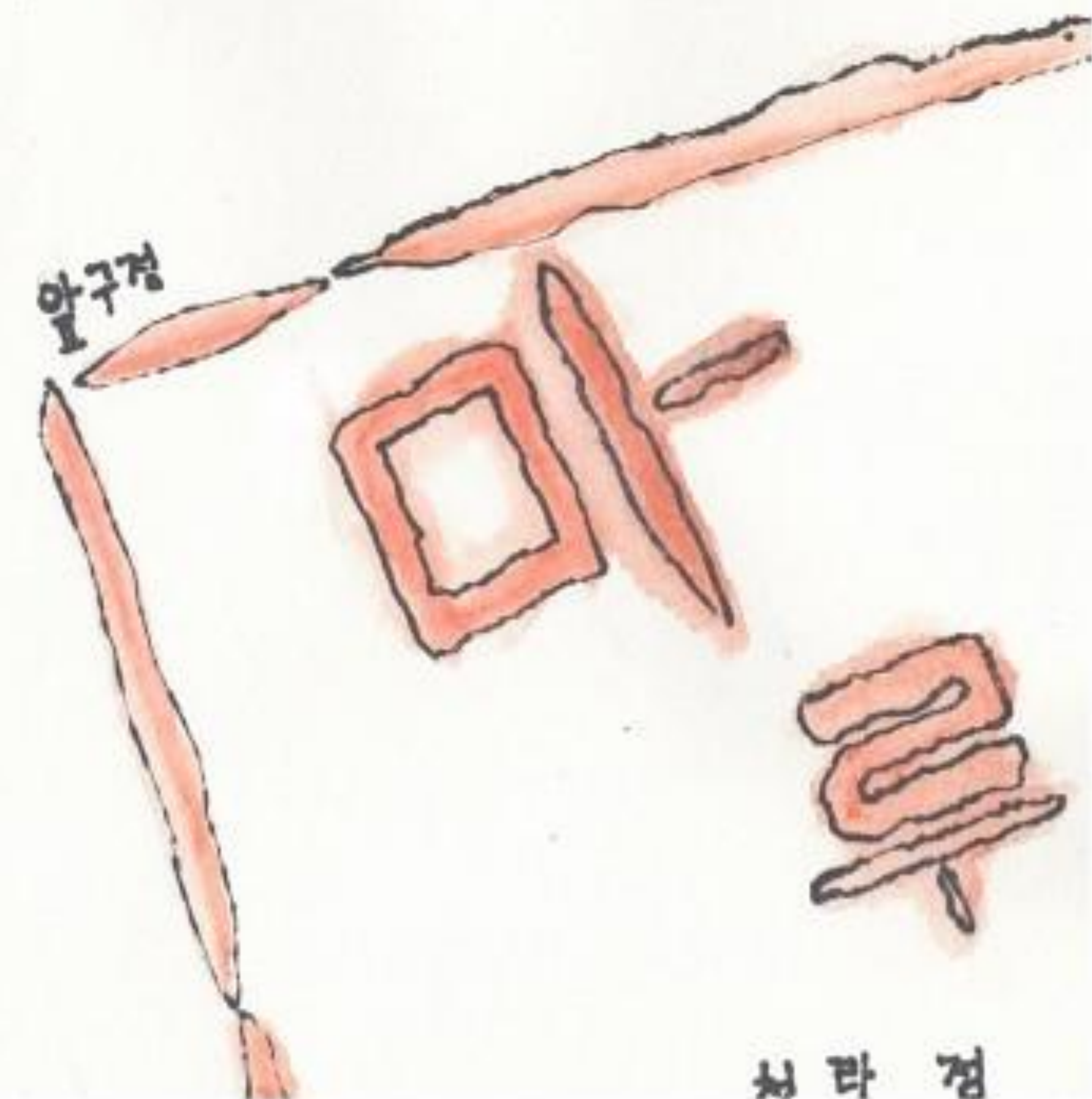
아침, 청라호수공원의 음악분수도
꼭 한 번 보길 추천해. 음악분수가
있는 곳까지 운동 겸 자전거 타고
가기 좋더라. 여러가지 색의 분수라서
야경사진 찍기도 좋아. (근처에 사는
사람은 좋겠다고 생각했어!)



청라호수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청라생태공원도 좋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가도
좋은 곳이지! 봄과 여름엔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가을엔 울긋불긋한
단풍과 선선한 바람을 즐길 수
있어. 겨울엔 하얗게 반짝이는
눈까지.. 언제 와도 좋은 청라생태
공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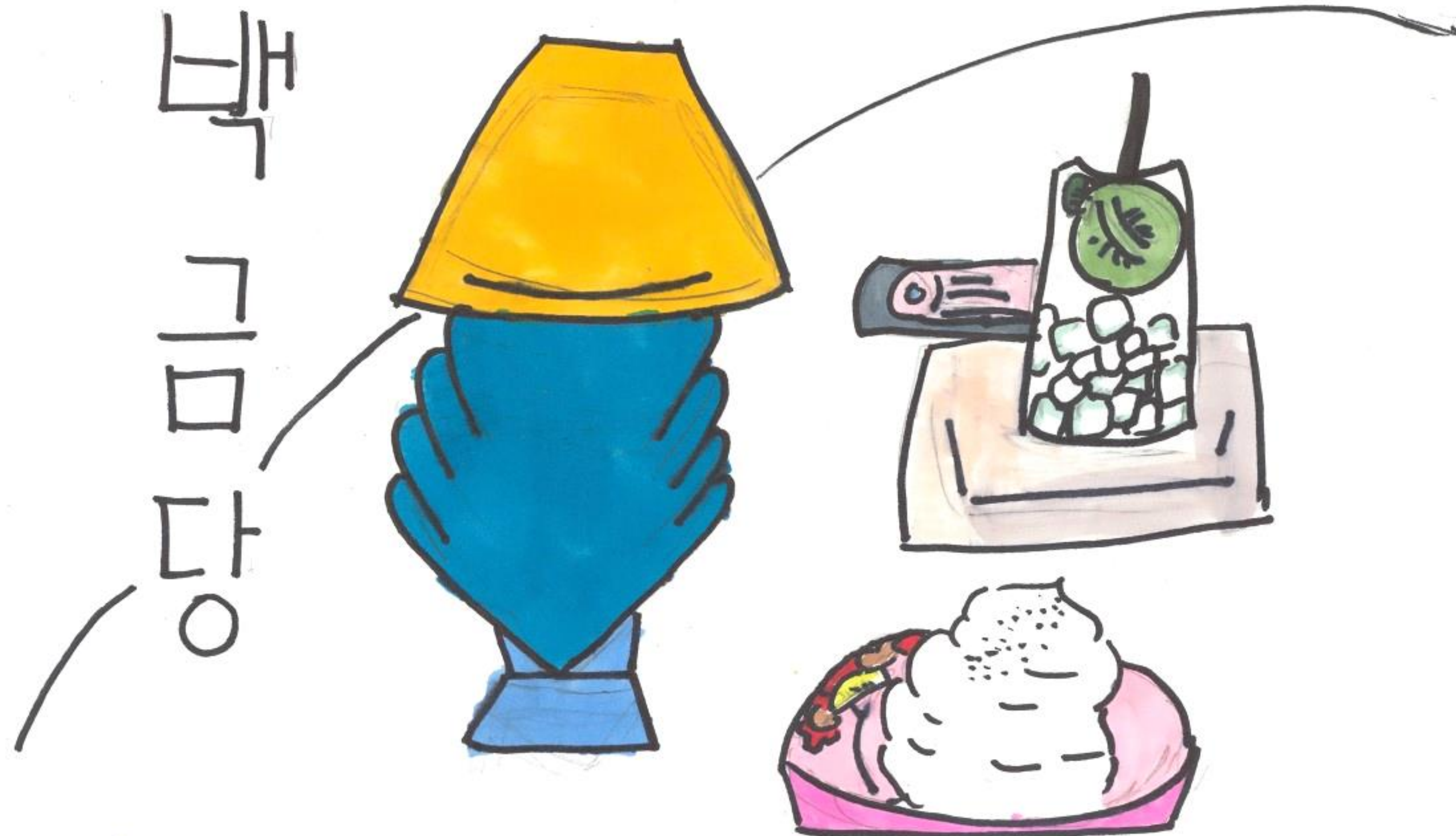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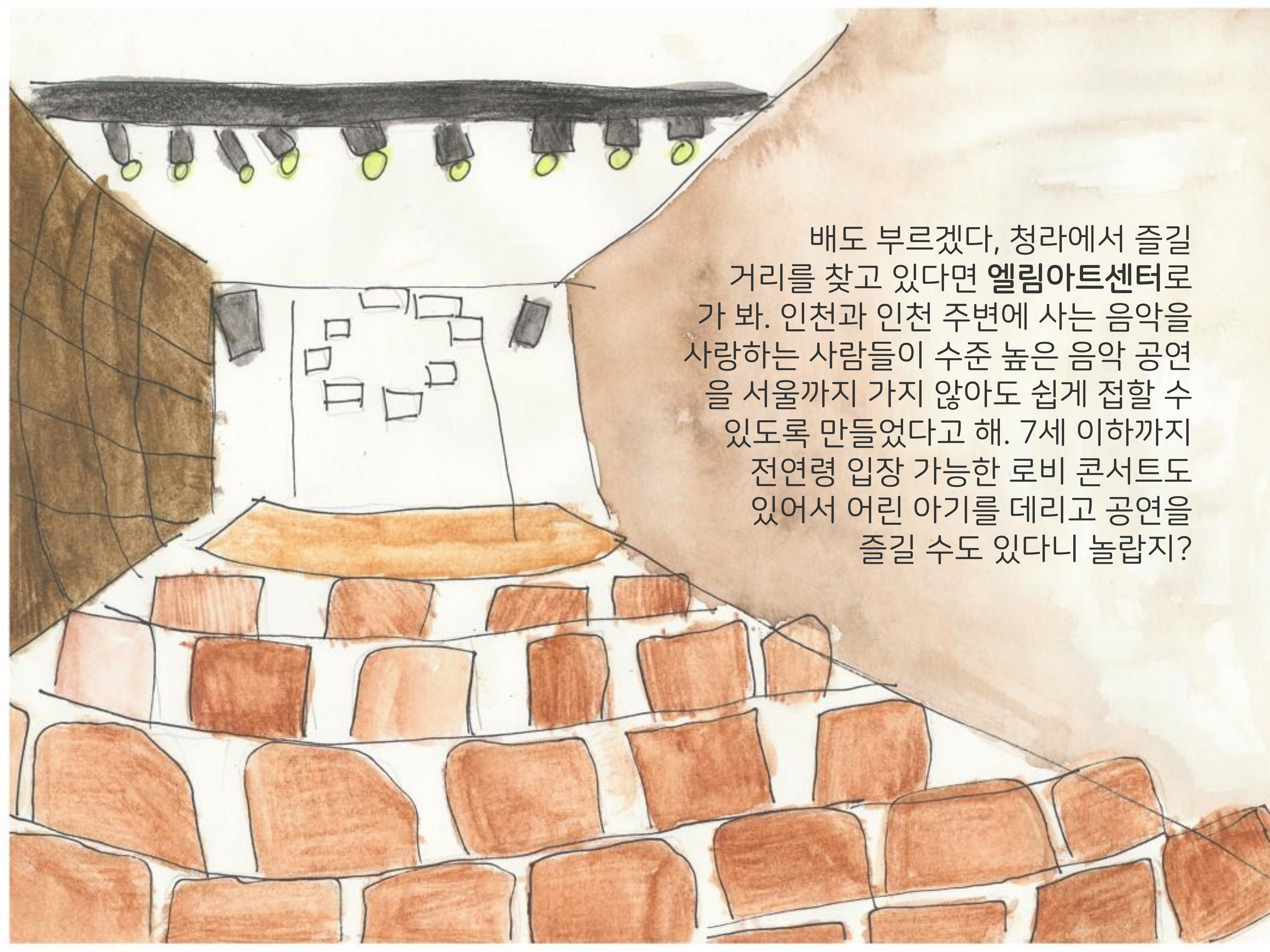
공원을 둘러보고 나서 배가 고파지면
맛있는 돈가스집에 가보는 게 어때?
압구정마루 청라점을 소개해줄게!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바로
돈가스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우리 같은 아이들도 먹기 좋아. 우동과
치즈돈가스, 볶음밥이나 다른 음식들도
모두 맛있어. 그리고 사장님이 엄청
착하셔! 그러니 내가 추천해주는
돈가스집에 꼭 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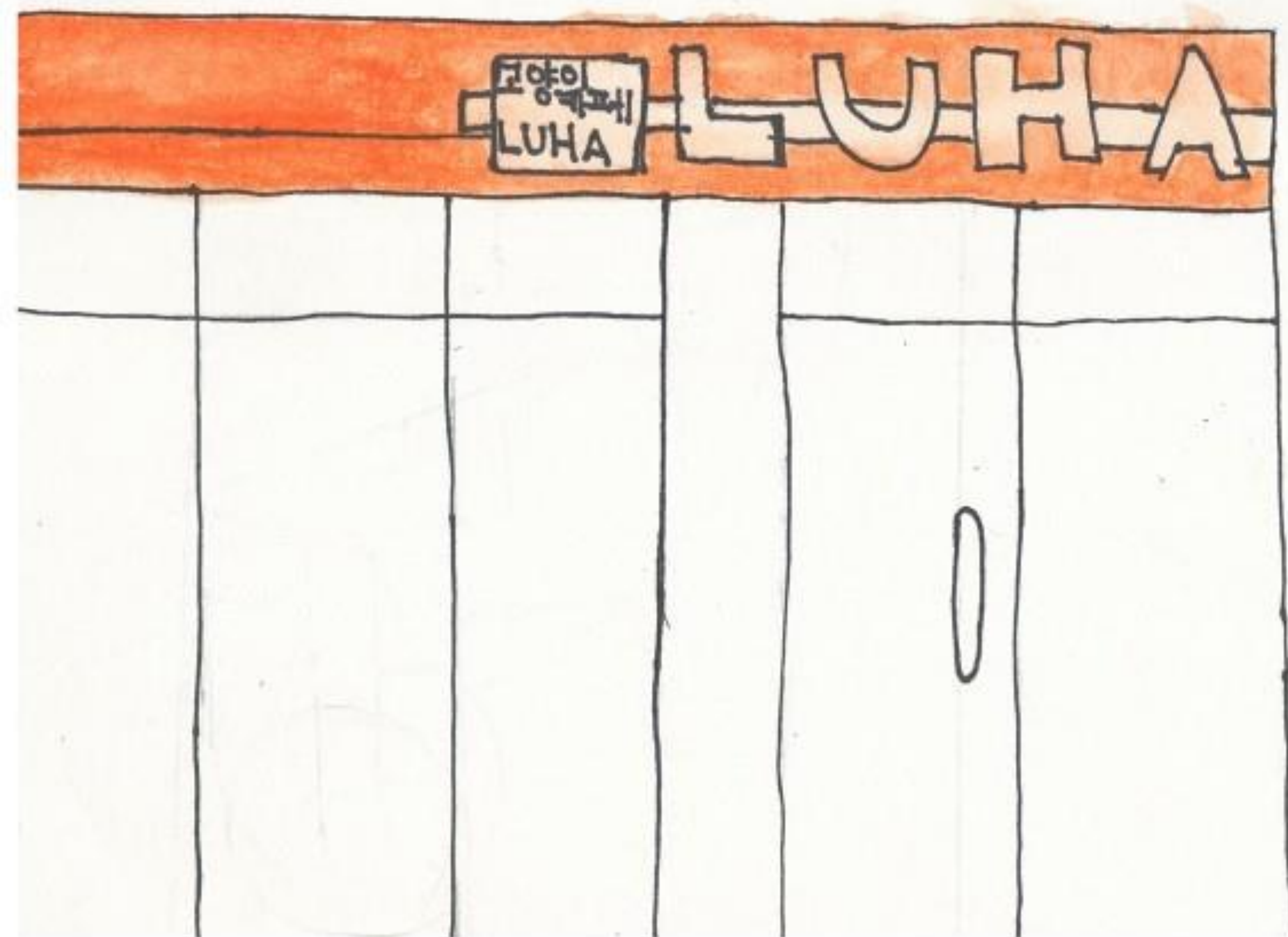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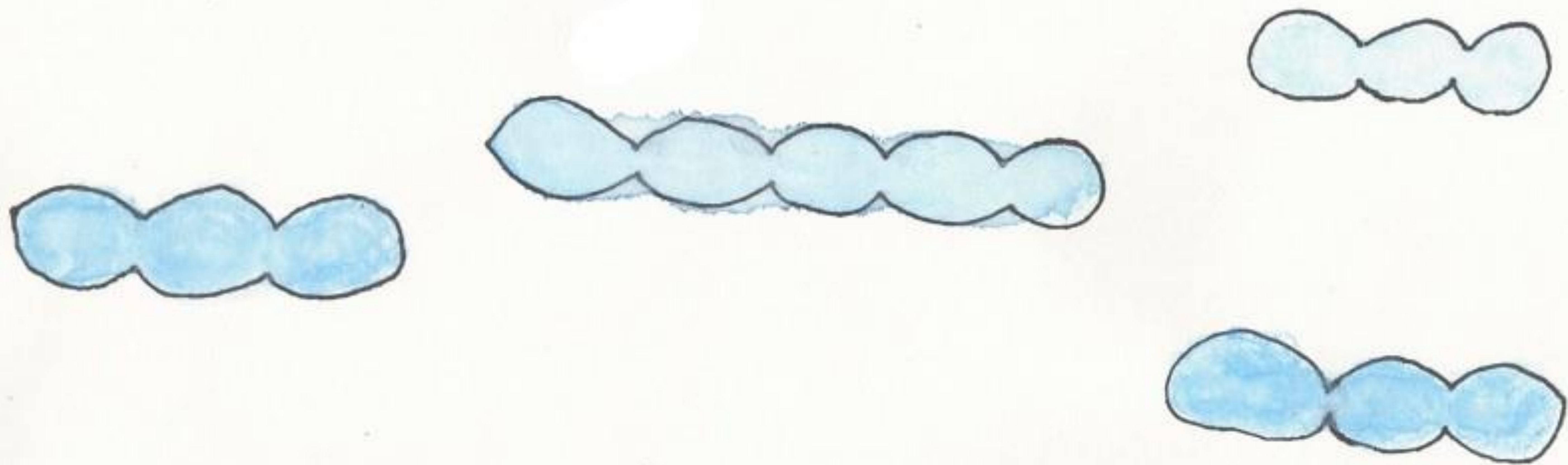
식사 후 디저트를 먹고 싶다고?
그렇다면 청라의 디저트 맛집 **백금당**을
소개해줄게. 주 메뉴는 백금당 케이크와
에이드와 커피야.

케이크에 부드러운 생크림이 올라가
있고 바나나, 키위, 블루베리, 청포도
등의 과일이 옆에 얹어져 있어. 되게
부드럽고 달콤해. 한 입 먹으면 눈이
동그래질 정도라니까!





배도 부르겠다, 청라에서 즐길
거리를 찾고 있다면 **엘림아트센터**로
가 봐. 인천과 인천 주변에 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준 높은 음악 공연
을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 7세 이하까지
전연령 입장 가능한 로비 콘서트도
있어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공연을
즐길 수도 있다니 놀랍지?



혹시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청라의 고양이 카페 루하에도
가보렴. 거기는 체험도 가능해.
고양이에게 밥 주는 거랑 만지는
걸 할 수 있어. 카페에서 음료도
팔아. 그래서 고양이와 놀다가
목 마를 때 마시면 돼.

도자기에 관심이 많다면
청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녹청자 박물관을 추천할게!
도자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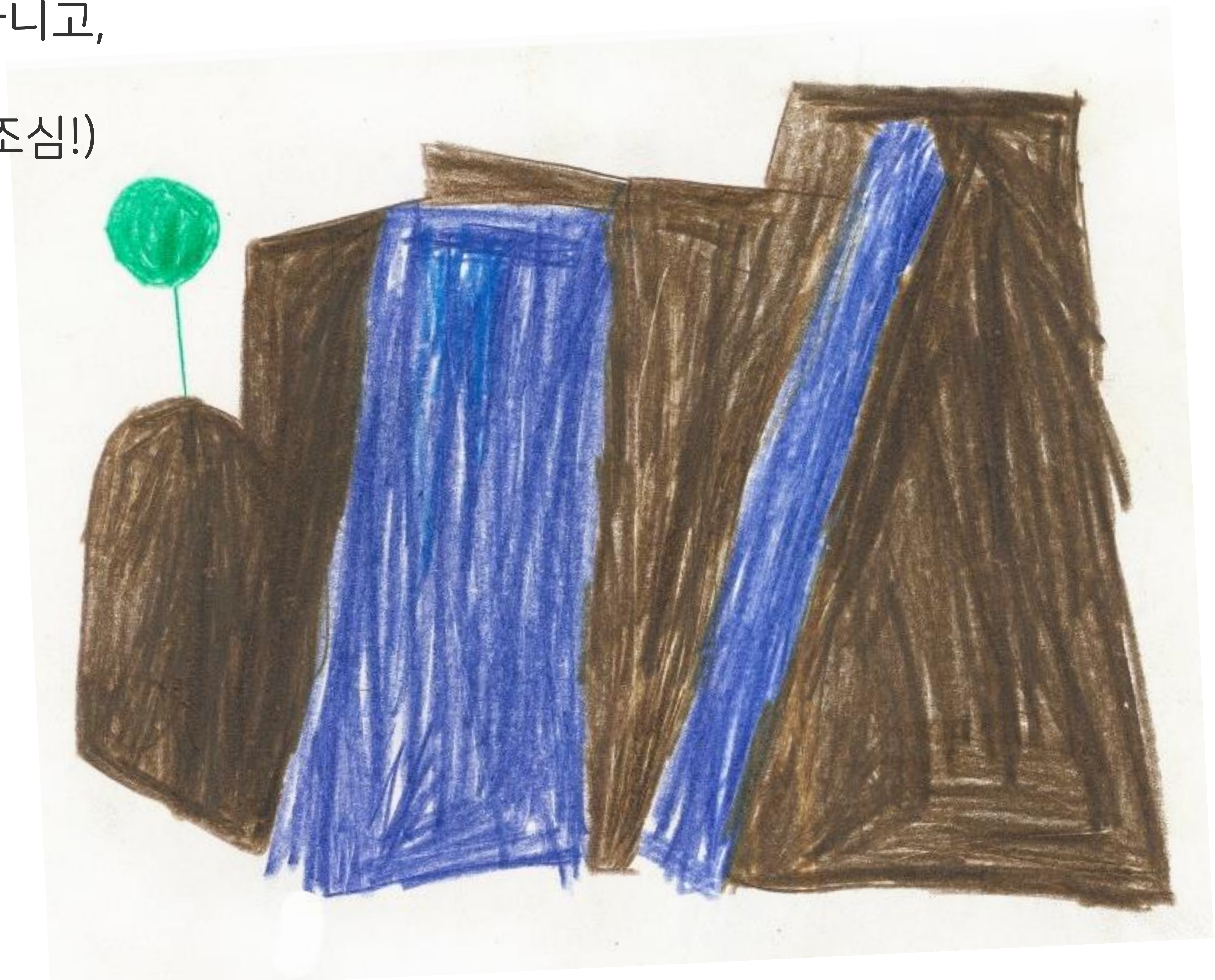


“노을이 아름다운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들어봤니?



경인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아라타워 전망대에 올라가면 멋진 경치도 볼 수 있고 1층에서는 홍보관 체험도 가능해. 정서진광장 옆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여행한다면 특별한 경험이 될거야.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따라 가다보면
아라폭포를 만나게 될거야. 그 폭포는
여름에 가면 진짜 시원해.
폭포 사이에는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지나가면 물을 더 많이 맞고 시원해서
사람들이 그 사이로 많이 다니고,
사진도 찍어.
(※주의: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





아라뱃길 주변을 다 돌아보았다면,
신포동으로 가보면 어때?

여기는 신포시장이야! 여러 음식들을
좋아한다면 이곳에 와서 여러 맛있는
음식을 먹어 봐! 예를 들면 신포닭강정,
신포참숯김 등이 유명해.

그 중 신포닭강정은 여러 가게가 있고,
TV에도 소개된 적이 있어.
신포시장에 가면 닭강정을 꼭
먹어보면 좋을거야.



신포시장에서 조금 이동하면
차이나타운을 만날 수 있어.
인천 개항이 되면서 중국인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주했고, 그러면서
인천 차이나타운이 생겼다고 해.
차이나타운에도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 자장면, 탕후루, 홍두병, 화덕
만두, 포춘쿠키, 샤오롱바오, 그리고
공갈빵 등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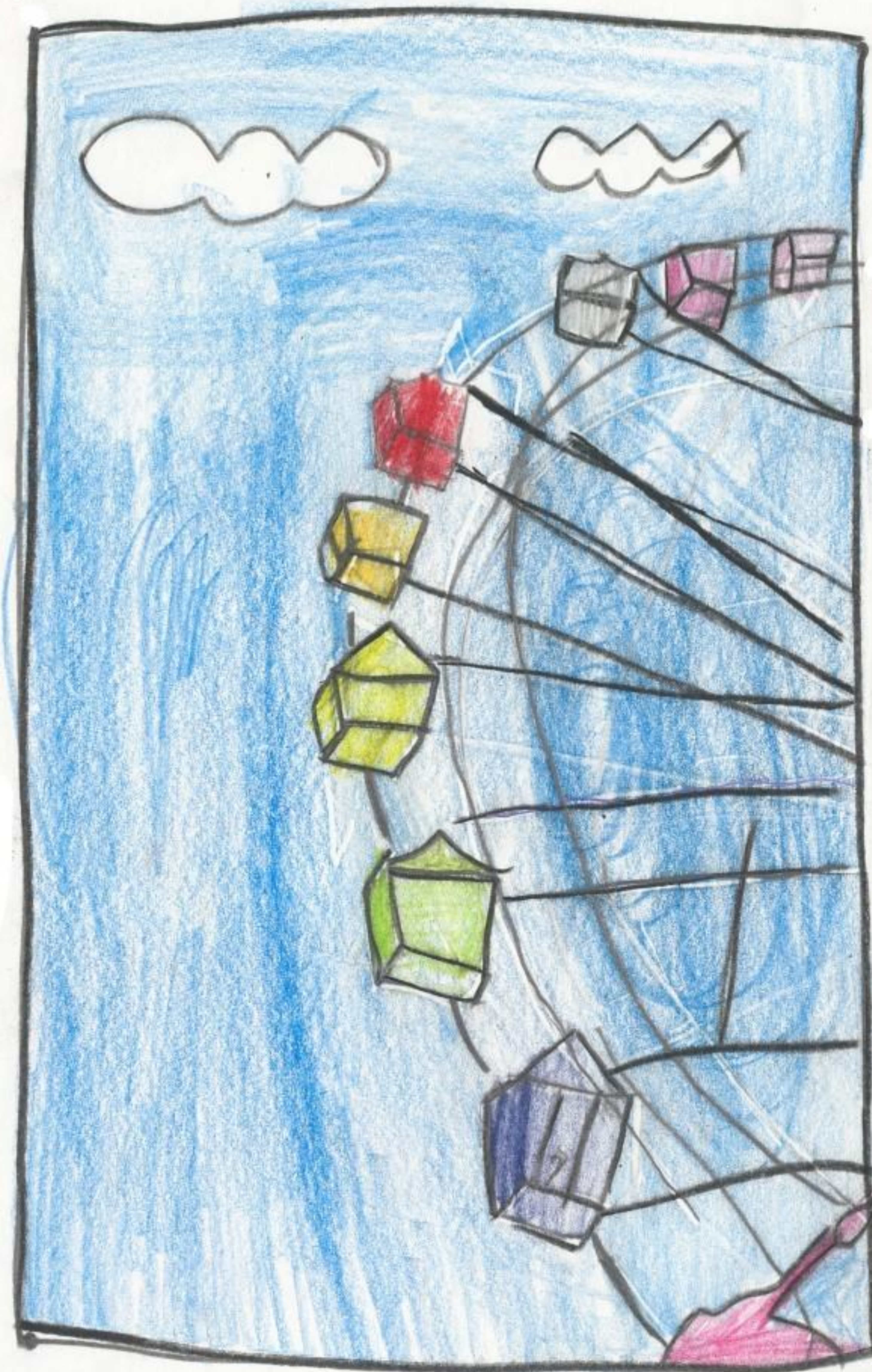


차이나타운에서 인천역을 지나
월미도로 가볼까?

여기는 월미도 불란서찐빵이야.
여기에선 맛있는 찐빵과 만두를
맛볼 수 있어. 맛을 한 번 보면 계속
빠질 걸~

너는 관람차를 타 본 적이 있니?

나는 전에 월미도에 갔을 때 관람차를
타 본 적이 있어. 무섭기는 했지만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너도 용기를 내서 **월미도 관람차**를
한 번 타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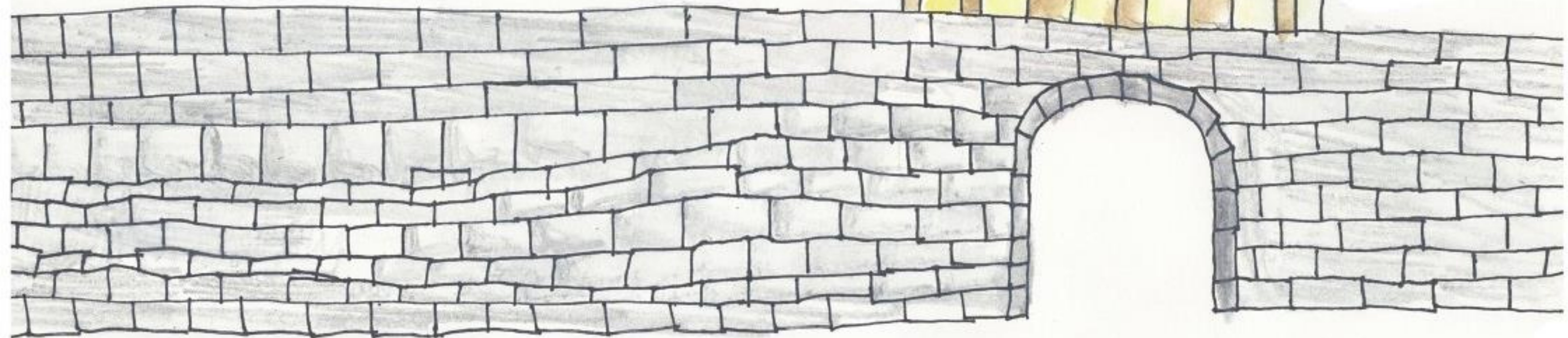


인천에 좀 더 머물 수 있다면 강화도에도 꼭 가 봐. 이곳은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면 바로 볼 수 있는 **강화초지진**이야.

초지진은 1971년에 사적 제255호로 지정되었어. 초지진에서는 운요호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일어났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웠던 장군들을 생각하며 초지진을 둘러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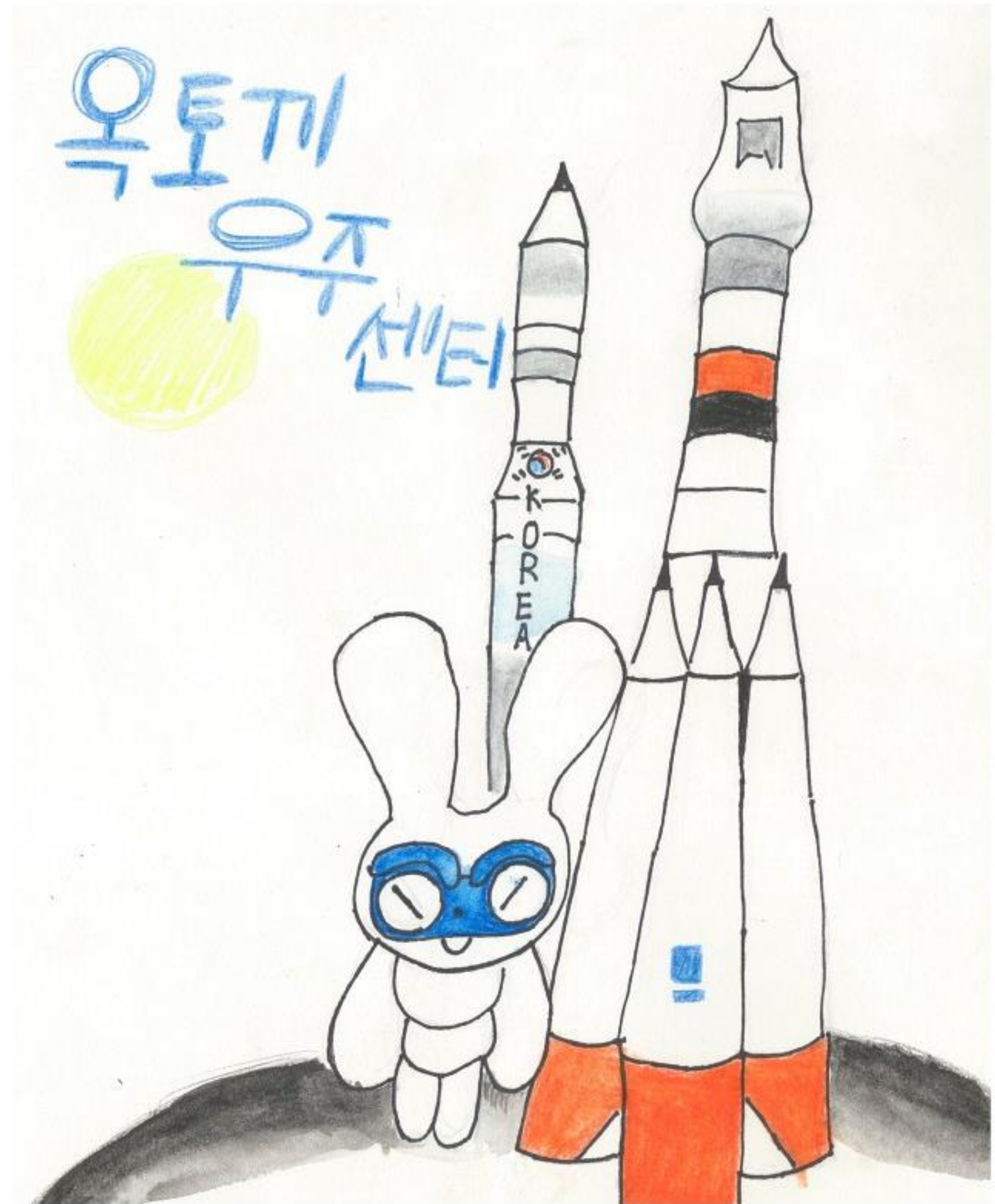


강화도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더
둘러보고 싶다면 **강화산성**도 추천해.
강화산성은 몽골의 침략으로
1232년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뒤
축성된 강화의 도성이야. 몽골 침략에
대항한 고려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이지. 찾았을 당시에는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복원되어서 강화나들길 15코스가
만들어져 있어.



이곳은 어때?
여기는 옥토끼 우주센터야.

너는 우주에 관심이 많니? 우주에
관심이 없어도 재밌을거야. 옥토끼
우주센터는 우주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어. 사계절
썰매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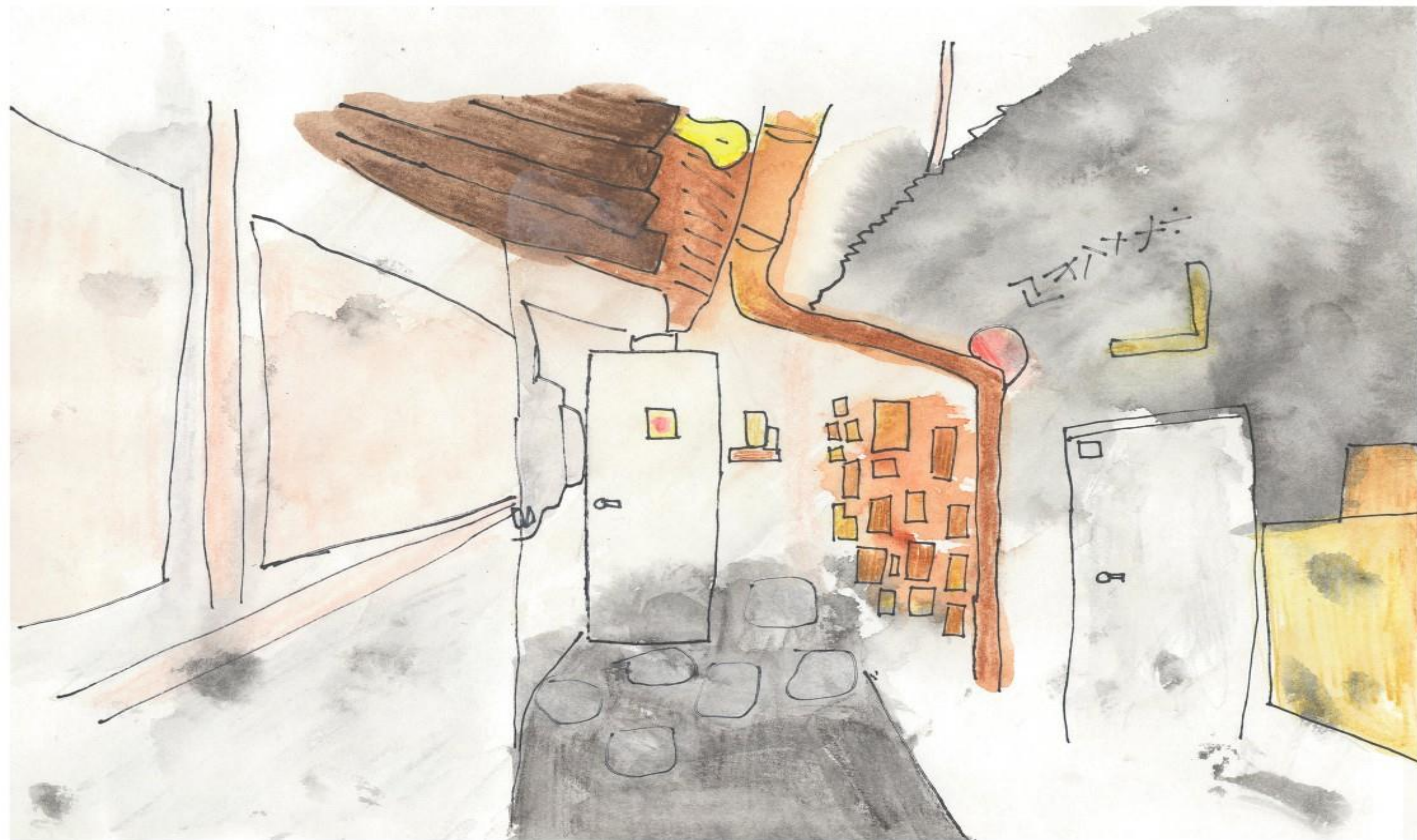
강화도 옆의 작은 섬 교동도에 가면
강화 화개산 모노레일을 탈 수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있어.

모노레일을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망대도 있어. 거기에서는 북한 땅도
보여.



혹시 네가 그림에 관심이 많다면
강화도의 더리미미술관을 추천해줄게.

월요일이 정기휴무이고 미술관 겸
카페야. 다양한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도 할 수 있어.





[강화도와 주변 섬 지도]

여행을 마치면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겠지?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 중 가장 크고 시설이 좋아.

네가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거쳐가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나는 인천에 자부심을 느껴.
한국, 그리고 인천에서의 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랄게. 안녕~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도]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인천에서 보낸 시간이 꿈만 같다.



꾸리 덕분에 즐거운 인천생활을 경험하고 돌아간다.
꾸리는 다 소개하지 못한 인천의 명소가 많다고,
다음에 꼭 다시 놀러오라고 했다. 다음을 기약하며
떠나는 아쉬움을 달래야겠다.

